

## 현대공업, 실리콘밸리식 100억 펀드 조성 ... 스타트업 상생 성장 도모

- ▶ 중견기업 주도로 조성하는 순수 민간펀드, 실리콘밸리식 CVC 펀드 투자 모델
- ▶ 주력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목표로 스타트업 생태계 베티



<2019-11-01> 자동차 내장재 전문 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다.

현대공업은 지난 31일 부산 소재 창업투자 전문업체 선보엔젤파트너스 본사에서 100억원 규모의 'HDI패스트이노베이션펀드(이하 HDI펀드)' 조성을 위한 결성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펀드명의 HDI는 현대공업의 영문 약자로, 현대공업은 해당 펀드의 최대 출자자(LP)다. 펀드의 운용은 국내 벤처캐피털(VC)인 라이트하우스컴바인(공동대표 최영찬, 고병철)에서 맡을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방식의 펀드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순수 민간펀드다. 이를 통해 될성부른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스스로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현대공업은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려왔으나, 전통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부품업은 현재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번 펀드 조성의 배경도 현대공업의 이러한 고민이 담겨있다.

현대공업 강현석 대표는 “좋은 기술력을 확보한 유망 스타트업이 많고, 이들과 함께 성장을 고민하고 주력산업에서도 해법을 찾아갈 계획”이라며 “단순히 현재의 투자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스타업을 심도있게 검토해 미래 시장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펀드 조성 계기를 설명했다.

HDI펀드는 '세상에 없는 펀드'라는 약칭을 붙였다. 그동안 주목적을 두고 투자하는 스타트업 펀드와는 달리 HDI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도, 1회 투자 규모 제한도 없다. 중견기업 주도의 순수 민간 펀드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유망 기업들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현대공업이 테스트베드 제공 등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투자방식은 스타트업의 본고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 제약회사가 해당 방식을 활용해 펀드 조성 후 스타트업 발굴에 나서지만 흔치 않은 사례다. 이번 펀드 조성의 주체가 제조업 기반의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첨부사진 : 현대공업 펀드 결성식 / 현대공업 강현석 대표(아래열 가운데)

#### ※ 참고

국내 벤처 펀드의 경우 정부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2018년 기준 주요 출자자 61%가 공공기관 출자자다. 반면 미국은 2018년 기준 총 스타트업 투자액 40%가 CVC 투자(한국은 17%)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따르면 CVC 투자유치 스타트업들은 전통적 벤처캐피털 투자보다 기업공개 후 시장 초과 수익률, 매출 증가율 등이 모두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인텔 등 대기업부터 중견기업들까지 활발하게 펀드를 조성해 실리콘밸리 스타업을 육성하는 이유다.

- 한미중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비교 (2019년.5월) - 한국무역협회

#### ☎ 자료문의

현대공업 임현재 차장 (052-278-1848)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